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악어의 눈물보다 더한 [느헤미야 9]38-10:39]

설교자: 앤드류 드 브리스 (Andrew de Vries)

38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1 그 인친 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2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3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4 핫두스, 스바냐, 말룩, 5 하림, 므레못, 오바다, 6 다니엘, 긴스돈, 바룩, 7 므술람, 아비아, 미야민, 8 마아시야, 빌개,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9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10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11 미가, 르흠, 하사바, 12 삭굴, 세레바, 스바냐, 13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14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합모압, 엘람, 샷두, 바니, 15 분니, 아스갓, 베배, 16 아도니아, 비그왜, 아딘, 17 아델, 히스기야, 앓술, 18 호디야, 하숨, 베새, 19 하립, 아나돗, 노배, 20 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21 므세사벨, 사독, 앓두아, 22 블라다, 하난, 아나야, 23 호세아, 하나냐, 핫습, 24 할르헤스, 빌하, 소백, 25 르흠, 하삽나, 마아세야, 26 아히야, 하난, 아난, 27 말룩, 하림, 바아나이였느니라 28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29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좇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30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칠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2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35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3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39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음을 보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 행동 역시 변화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서 언제 돌아올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가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그가 언제 돌아올지 이야기 해주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옳은 것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엔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관해 큰 슬픔을 보입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 10장에선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관계의 새롭고 다시 그 분께 순종을 다짐합니다. 이것을 언약갱신이라 부릅니다.

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분을 위해 살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1, 언약의 내용: 오늘 설교본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순종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하는 것은 언약적 관계의 맥락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순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미 맺고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관계를 맺으시려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분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고 삶의 다른 여러 일들로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관계를 뒷전으로 미룹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갱신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장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2, 언약적 동반자: 84개의 다른 무리들이 언약갱신을 위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각 무리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 아닌 각 무리의 대표들이 그들 각각의 무리 구성원들을 대표해 참여했습니다. 언약의 동반자들은 그들의 헌신에 대해 굉장히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9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좇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우리 주 여호와와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느헤미야 10:29). 불순종에는 처벌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 했을 때 따르는 처벌의 댓가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진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솔하게 다루선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엔 댓가가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가장 신실한 동반자가 되길 원합니다.

3, 언약적 우선순위: 하나님께 그들의 순종을 새롭게 하는데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의 삶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의 가족 안에서만 결혼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30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느헤미야 10:30).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혼합니다. *39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7:39).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결혼상대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둘째, 직장에서의 삶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일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31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칠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밭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느헤미야 9:31). 그들은 주일엔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거나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분 안에서만 그들의 기쁨을 찾을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써야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삶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39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10:39). 성전의 일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듣기 때문입니다. 희생제와 성전의 전제구조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을 지원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와 음식을 가져와 이 일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의 일을 지원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섬김으로 교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갈망이 솟아나도록 또한 그 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언약의 모든 요구들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언약에 순종하심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적 헌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주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은 위정자를 빗대어 말하는 통속어이다. 악어가 먹이를 씹으며 먹히는 동물의 죽음을 애도해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서 전래된 것으로, 패배한 정적 앞에서 흘리는 위선적 눈물을 가리킬 때 쓰인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5%85%EC%96%B4%EC%9D%98_%EB%88%88%EB%AC%BC